

# 閩 방언에서의 ‘了’의 실현 初探

진환상\* · 고영란\*\*

## <目 次>

1. 서론
2. 민(閩) 방언의 범위
3. 민(閩) 방언에서의 ‘了’의 실현
  - 1) 閩東方言
  - 2) 閩南方言
  - 3) 莆仙方言
  - 4) 閩北方言
  - 5) 閩中方言
4. 결론

## 1. 서론

중국의 넓은 공간적 조건과 시간의 흐름은 여러 방언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하여 현대중국어와 방언, 또 동일한 방언구 내의 차(次) 방언 사이에도 상이점이 발견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방언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통한다. 특히 남방 방언에는 고대중국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어의 통시적 연구를 진행할 때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한국 내 중국어학계에서도 중국어 방언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어 방언 연구가 드물 뿐만 아니라 주로 음운 분야로

\* 진환상: 한세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중국어학과 조교수

\*\* 고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강사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고는 중국어 방언의 어법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閩 방언에서의 ‘了’의 실현에 관한 초보적인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방언의 상을 주제로 한 학술지 및 논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sup>1)</sup>

시 기	수 량	비 율
1980년대	5	3.70%
1990년대	14	10.37%
2001~2011년	116	85.93%
총 계	135	100

이상의 통계가 2011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閩 방언에 관한 연구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광동 閩語의 발전(李新魁 1987), 福州 방언의 상표지(陳澤平 1996), 泉州 방언의 상표지(李如龍 1996), 莆仙 방언의 완성상(王麗 2006), 閩南 방언의 상(胡繼明, 連麗萍 2008), 閩東 방언의 상(李濱 2014), 閩南 방언의 ‘了’(施其生 2014) 등 閩 방언 연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李如龍은 복건성 泉州 출신으로 陳章太, 李如龍(1991) 『閩語研究』, 1997년 『福建方言』, 2007년 『閩南方言語法研究』 등 閩 방언을 포함한 남방 방언에 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閩 방언 연구에 참고할 만한 국내자료는 樸炯春(2004), 이지은·강병규(2014), 유수경(2016) 정도로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 가운데 유수경(2016)은 방언 내에 존재하는 ‘來’의 시상 기능을 분석함과 함께 ‘來’의 발전 경로가 문법화의 보편성에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흔하지 않게 방언의 시상에 관심을 둔 연구이다.

閩 방언은 현대중국어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듯이 현대중국어의 ‘了’에 해당하는 표지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본고는 閩 방언이라

1) 盧小群·韓金廣, 「新時期以來漢語方言時體問題研究述評」, 『現代語文』, 2014年, 第7期 참조.

는 대방언구로 묶이는 방언의 범위를 정한 다음 문헌조사법을 통해 민방언에서 ‘了’에 대응하는 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현대중국어의 ‘了’에 대응하는 표지를 방언에서 고찰함으로써 ‘了’의 통시적 발전 흔적을 확인하고, 더불어 그것과 관련된 표지들의 전형적인 발전 경로를 추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 2. 민(閩) 방언의 범위

방언 연구의 시작은 우선 방언의 구획을 확정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역이 넓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인구의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중국어 방언 구획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sup>3)</sup>

중국어 방언에 대한 분류는 일찍이 趙元任(1934), 『語言區域圖』(1939, 1948), 李方桂(1937), 丁聲樹·李榮(1965)의 『漢語方言調查』 등에서 진행되었다.<sup>4)</sup> 그 가운데 李方桂(1937)의 방언 분류법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고, 중국어 방언학 연구의 기초로 활용된다.<sup>5)</sup> 현재 학계에서는 중국어 방언을 北方話, 吳語, 湘語, 贛語, 客家話, 粵語, 閩語,<sup>6)</sup> 이렇게 7대 방언구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sup>7)</sup>

- 
- 2) 중국어학계에서는 ‘了’를 시태조사 ‘了<sub>1</sub>’과 문말조사 ‘了<sub>2</sub>’로 분리하고 있지만 ‘了<sub>1</sub>’과 ‘了<sub>2</sub>’는 문법화 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 ‘了<sub>1</sub>’과 ‘了<sub>2</sub>’의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특히 ‘了’가 문미에 오는 경우가 그러하다. 사실상 ‘紅了一陣, 白了一陣’처럼 형용사 뒤에 결합하는 ‘了’도 상태의 완료, 즉 ‘了<sub>1</sub>’로 간주하며(劉月華 2001:364), ‘了<sub>2</sub>’가 ‘了<sub>1</sub>’보다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미에 오는 ‘了’를 ‘了<sub>1</sub>’과 ‘了<sub>2</sub>’가 더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劉月華 2001:381 참조). 따라서 본고에서는 ‘了<sub>1</sub>’과 ‘了<sub>2</sub>’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다만 ‘了<sub>2</sub>’의 용법이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므로 그 범위를 V/A+了로 제한하기로 한다.
- 3)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 제기되었던 중국 방언구의 수는 4구-5구-7구-8구-11구로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었으며,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11구-8구-7구로 점차 그 범위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1985년 이후 7대 방언 또는 10대 방언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4) 李榮, 「漢語方言的分區」, 『方言』第4期, 1989年 참조.
- 5) Jerry Norman(全廣鎮 옮김), 『중국어언어학총론』, 東文選, 1996년, p.269 참조.
- 6) 방언구과 관련된 중국 지명과 고유 명사는 기본적으로 중국식 한자 표기를 그대로 따르기로 하며, 반복적으로 출현하거나 익숙한 지명은 독음 처리하기로 한다.

상술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듯이 학자들은 閩 방언을 하나의 대방언구로 삼고 있다. 閩 방언은 閩語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중국의 동남부 福建省 일대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지역 외에 台灣, 海南, 廣東省의 潮汕 지역과 雷州 반도에도 분포하고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閩 방언을 閩南 방언과 閩北 방언으로 나누었다. 이후 閩 방언 구획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다.

『福建漢語方言分區略說』(潘茂鼎等, 1963)에서 5개구(閩東, 閩南, 閩中, 閩北, 莆仙), 『中國語言地圖集』(1987)에서 7개구(閩南, 莆仙, 閩東, 閩北, 閩中, 邵將, 瓊文), 『福建方言』(李如龍, 1997:83-84)에서 6개구(閩東方言, 莆仙方言, 閩南方言, 閩中方言, 閩北方言, 閩方言過渡區), 『現代漢語方言概論』(侯精一, 2002:216)에서 6개구(閩東, 莆仙, 閩南, 瓊雷, 閩北, 閩中), 『漢語方言概要』(袁家驊, 2001:235)에서 5개구(閩東, 莆仙, 閩南, 閩中, 閩北)로 분류하였다.<sup>8)</sup> 특히 『中國語言地圖集』에서는 閩 방언을 민남(閩南), 보선(莆仙), 민동(閩東), 민북(閩北), 민중(閩中), 소장(邵將), 경문(瓊文), 7개의 구획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몇 가지 주장을 참고하여 민방언의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侯精一(2002)에 따르면 客贛 방언과 閩 방언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겸하고 있는 邵將 방언의 경우 贛 방언 지역으로 이미 변화했다. 또, 瓊文 방언의 경우에도 閩南 방언에서 분화되며 일찍이 떨어져 나왔고 본토, 특히 海南 방언과 동떨어져 원래의 민남어 구역과는 더욱 단절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소장(邵將)과 경문(瓊文)은 논외로 하겠다. 결과적으로 연해 지역의 민동(閩東)방언, 보선(莆仙)방언, 민남(閩南)방언, 연산(沿山) 지역의 민북(閩北)방언과 민중(閩中)방언<sup>9)</sup>, 이렇게 5개 구획의 방언을 민방언구로 보기로 한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어 방언 중에서도 閩 방언은 다른 방언에 비해 현대

7) Charles N. Li, Sandra A. Thompson(박정구 외 옮김), 『표준중국어문법』, 한울, 1981년, p.21. 黃伯榮, 廖序東,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1991年, p.9. 李小凡, 『漢語方言學基礎教程』, 北京大學出版社, 2009年, p.33 참조.

8) 『中國語言地圖集』(1987:20)에 수록된 지도를 통해 閩 방언구를 참고할 수 있다.

9) 侯精一(2002)에 따르면 언어학계에서 최근 연산민어(沿山閩語)를 새롭게 민어(閩語)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방언은 민북어와 민중어를 포함한 복건성 중북부 내륙 지역에 분포한다. 이 지역은 산이 많아 '연산 민어'라고 불리어진다.

중국어와 차이가 큰 방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閩 방언구의 내부에 또 다른 여러 방언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중국어의 ‘了’에 의해 실현되는 의미가 閩 방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민(閩) 방언에서의 ‘了’의 실현

#### 1) 민동(閩東) 방언

민동 방언은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남부는 복주 중심의 민강 하류 지역인 복주(福州), 장악(長樂), 복청(福清), 민청(閩清), 평담(平潭), 영태(永泰), 병남(屏南), 고전(古田), 나원(羅源), 연강(連江)을 포함하며, 복주어(福州話)로 대표된다. 북부는 복안(福安)을 중심으로 복안(福安), 저덕(寧德), 하포(霞浦), 주저(周寧), 수저(壽寧), 자영(柘榮), 복정(福鼎) 7개의 閩東 연해 주와 연안 지역을 포함하며, 복안어(福安話)로 대표된다.<sup>10)</sup>

복주어에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는 ‘咯’와 ‘黎’가 있다. 먼저, ‘咯’는 정태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 상태 변화의 실현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 (1) 老王今旦病咯。(老王今天病了。)  
라오왕은 오늘 병이 났다.
- (2) 汝最近肥咯。(你最近胖了。)  
너 요즘 살 찼구나.

(陳澤平, 1996:227)

‘咯’는 예(1)에서 동사 ‘病’ 뒤에 놓여 병이 난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예(2)에서는 형용사 ‘肥’ 뒤에 놓여 살이 찼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만약 동사 뒤에 결과보어가 수반되면 ‘咯’는 반드시 보어 뒤에 놓인다. 아래의 예(3)을 보도록 하자.

10) 복주어와 복안어는 단지 성조에 있어서만 조금 다를 뿐 어휘와 어법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 (3) 伊藥食鄭咯。(他吃錯了藥。)  
그는 약을 잘못 먹었다.
- (4) 襯衫扣宕咯。(襯衫掉了扣子。)  
셔츠의 단추가 떨어졌다.

(陳澤平, 1996:230)

예(3)에서 동사 '食' 뒤에 놓인 '鄭'은 결과보어이며, '咯'는 술어의 기능을 하는 성분의 맨 마지막에 놓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대중국어에서 '了'가 사용되는 위치와 동일하다.<sup>11)</sup> 반면 타동사의 지배를 받는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현대중국어와 다르다. 예(4)를 통해 목적어가 동사보다 앞선 'OV (扣宕)+咯'의 어순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타 후속 성분이 있을 경우 동사와 목적어 또는 동사와 보어 사이에 완료 를 나타내는 '黎'을 첨가하여 선행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 (5) 我買黎兩瓶酒掏送丈人。(我買了兩瓶酒送給丈人。)  
나는 술 두 병을 사서 장인어른께 드렸다.

(陳澤平, 1996:231)

예(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黎'의 위치는 현대중국어의 '了'와 비슷하다. 즉, '黎' 는 동사 '買'와 목적어 '兩瓶酒'에 사이에 놓인다. 또한, 이렇게 'V+黎+O' 구조일 때 후행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我看黎電影'이 문장 안에서 성립하려면 '我看黎電影就去找你'와 같이 후행 사건 '就去找你'가 발생해야 한다. 이것은 현대중 국어에서 '了'가 첫 번째 동사 뒤에 쓰여 첫 번째 사건의 발생을 제한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11) 劉月華,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1年, p.370 참조.

## 2) 민남(閩南) 방언

민남 방언은 민남어로도 불리며, 고대중국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학술계에서는 “언어의 화석”으로 불리고 있다. 민남 방언은 민방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복건(福建), 대만(台灣), 광둥(廣東), 홍콩(香港), 동남아 각지의 민남어를 모두 포함한다. 민남 방언은 초기에는 泉州話로 대표되었으나 현재는 廈門話로 대표된다.

천주어에서 사건의 완성 또는 종결을 나타내는 표지는 ‘去’와 ‘嘍’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먼저 ‘去(경성)’는 현대중국어와 동일한 구조로 사용된다.

(6) 破厝倒去嘍。(破房子倒了。)

낡은 집이 쓰러졌다.

(7) 鞋拖頌歹去嘍。(拖鞋穿壞了。)

신발이 닳아 헤어졌다.

(李如龍, 1996:197)

예(6)에서 동사 ‘倒’ 뒤에 ‘去’가 놓였으며, 예(7)에서 ‘去’는 결과보어인 ‘歹’ 다음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去’에는 방향보어의 기능이 남아 있다. 예(8)을 보도록 하자.

(8) 度儂騙去三百箇。(被人騙走了三百塊。)

다른 사람한테 300위안을 사기 당했다.

(李如龍, 1996:197)

이렇듯 민남 방언에서 ‘去’는 완성을 나타내는 표지와 방향보어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9) 度儂騙去幾落過。

사람들에게 몇 번 속아 넘어갔다. (‘去’ 방향보어, 被人騙走好幾回。)

사람들에게 몇 번 사기를 당했다. (‘去’ 결과보어, 被人騙了好幾回。)

(李如龍, 1996:199)

예(9)에서 ‘去’를 방향보어로 본다면 동사 ‘驅’ 뒤에 붙어 ‘속아 넘어가다’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去’를 결과보어로 보면 ‘驅去’는 동작의 완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기를 당했다’로 번역할 수 있다.<sup>12)</sup> Bybee(1994:32)에서 문법화의 단계에서 의미적인 의존성 증가, 문법형태의 그 본래적인 의미적 내용을 점점 더 잃어감에 따라 그것의 해석은 문맥에 포함된 의미에 점점 의존적이게 된다고 한 것처럼 중의적인 문장은 문맥의 영향을 받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嘮’가 완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嘮’는 주로 연동문에 서 첫 번째 동사의 뒤에 놓이며, 선행절이 VO 또는 VC 구조이면 ‘嘮’는 그 뒤에 위치한다. 예(10)을 보도록 하자.

(10) 等我問伊嘮則共汝說。(等我問了他再告訴你。)  
내가 그에게 물어본 후에 너에게 알려 줄게.

(李如龍, 1996:200)

예(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嘮’는 목적어 ‘伊’ 뒤에 놓인다. 이와는 달리 현대중국어에서 ‘了’는 목적어 앞에 놓여 ‘等我問了他再告訴你’라고 해야 정문이 된다.

### 3) 보선(莆仙) 방언

보선어는 莆田縣城의 여성어(荔城話)를 대표하는 보전어(莆田話)와 仙遊縣城의 이성어(鯉城話)를 대표하는 선유어(仙遊話)를 포함한다. 보선 방언은 민남 방언의 기초 위에 민동 방언의 특징을 흡수하여 형성된 일종의 혼합형 방언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李如龍·陳章太(1984)의 「論閩方言內部的主要差異」에서는 214개의 보선어 어휘 중 민남어와 천주어에서 동일한 어휘가 약 62% 정도, 민동어와 복주어에서 동일한 어휘가 39%라고 하였다. 이 사실은 보선

12) 현대중국어에서 ‘了’는 문법화 단계에서 방향보어, 결과보어의 발전 과정을 거쳤으므로 그런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 때문에 결과보어나 방향보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劉月華等,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1年, p.366 참조.



어와 민남어는 기원이 같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준다.

侯精一(2002)는 보선 방언은 민남과 민동 지역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백독계통의 음은 민남 지역에 가깝고,<sup>13)</sup> 성모가 연독되는 것은 민동 지역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黃金洪(2002)는 선유어(仙遊話), 복주어(福州話), 하문어(廈門話)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하여 보선 방언이 민남 방언과는 근접하면서도 민동 방언과는 거리가 있는 그것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민방언의 차(次)방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선 방언에서 '嘞', '了' 그리고 '噤'가 현대중국어에서의 '了'에 대응하는 표지이다. '嘞'는 동사 뒤에 붙어 동작이나 상태의 실현을 나타내며, 사물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11) 暝跟菜都清嘞。(飯和菜都涼了。)

밥과 반찬이 모두 식었다. (음식이 모두 식었다)

(王麗, 2003:23)

예(11)에서 '嘞'는 동사 '清(식다)' 뒤에 놓여 따뜻했던 음식이 차가워졌음을 나타낸다. 만약 동사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가 수반되면 현대중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嘞'는 보어 뒤에 위치한다.

(12) 鞋拖頌該嘞。(拖鞋穿破了。)

슬리퍼가 낡아 헤어졌다.

(王麗, 2003:23)

예(12)에서 '該'는 '頌(낡다)'의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이며, 그 뒤에 완성을 나타내는 '嘞'가 놓였음을 알 수 있다. '嘞'는 현대중국어의 '了'와 같이 동사 뒤에서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지만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 동사 뒤에 방

13) 보선(莆仙) 방언의 문독(文讀) 체계는 중고한어의 『切韻』에 비교적 가까운 반면, 백독(白讀) 체계의 경우 일부는 상고한어의 음운에 가깝고, 또 다른 일부는 중고한어의 음운 체계에서 발전되어 왔다. 蔡國妹, 『莆仙方言研究—兼論過渡性方言的特征』,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6:9-10 참조.

향보어가 수반되면 ‘嘞’는 생략이 된다.

(13) 伊宮出來。(他講了出來。)  
그가 말했다.

(王麗, 2003:24)

예(13)에서 방향보어인 ‘出來’가 동사 ‘宮’ 뒤에 나오고 있으므로 ‘嘞’는 불필요한 성분이 된다. 둘째, ‘嘞’는 동사와 목적어 또는 동사와 보어 사이에 놓일 수 없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嘞’는 반드시 VO 또는 VC의 뒤에 위치한다. 또한, 문장 안에 동작의 지배를 받는 사물 목적어(受事賓語)가 있으면 이 목적어는 동사의 앞에 놓인다.

(14) 我許個杯因乞叩歹嘞。(我打破了那個杯子。)  
나는 그 컵을 깨뜨렸다.

(王麗, 2012)

예(14)에서 ‘嘞’는 ‘VC(叩歹)’ 뒤에 쓰였으며, 사물의 지배를 받는 목적어 ‘杯因’는 동사 앞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현대중국어 ‘了’에 대응하는 또 다른 표지인 ‘了 [l i a u] (경성)’은 동사와 목적어 또는 동사와 보어 사이에만 위치하며, 후속 성분으로 술어성 성분이나 절이 수반될 때 ‘了’는 첫 번째 동사 뒤에 붙어 선행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sup>15)</sup>

(15) 我催了伊三趟都藹催都伊。(我找了三趟都沒找到他。)  
나는 그를 세 번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王麗, 2006)

14) ‘乞’는 ‘불행, 손해’의 의미를 강화하는 조사로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 王麗, 『福建仙遊方言的“了”“嘞”“嘍”』, 『方言』第3期, 2012年 참조.

15) 閩北 방언에서 그러한 것처럼 莆仙 방언에서 ‘了’는 ‘완성, 종결’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쓰인다. 예) 做了未? (做完了沒有?)

(16) 我算睏食了, 電影看了亦學習。(我想吃了晚飯, 看了電影再學習。)

나는 저녁을 먹은 후 영화를 보고 다시 공부할 것이다.

(王麗, 2012)

예(15)에서 '我催了伊'는 단독으로 문장이 성립될 수 없으며, 뒤에 반드시 다른 후속 성분이나 절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중국어에서 '了'가 선행 사건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용법으로, 閩東 방언 복주어의 완성 표지 '黎'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마지막으로 '噤'는 '嘞'나 '了'와 달리 문미에만 위치하며, 어떤 사건/상황의 발생이나 변화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를 보도록 하자.

(17) 啊緊行, 落雨噤。(快走, 下雨了。)

빨리 가자! 비가 내린다.

(18) 伊有肥三斤噤。(他胖三斤了。)

그는 1.5kg이 찼다.

(王麗, 2012)

예(17)은 이미 비가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하며, 예(18)은 그의 체중이 1.5kg 늘어난 상태를 나타낸다. '噤'는 문장의 끝에만 오며 다양한 성분과 공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말조사 '了'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다.<sup>16)</sup>

#### 4) 민북(閩北) 방언

민북 방언은 건구(建甌), 건양(建陽), 송계(松溪), 남평(南平)의 일부 지역, 순창(順昌), 정화(政和), 무이산(武夷山)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건구어(建甌話)로 대표된다. 건구(建甌)는 고대에 건안군(建安郡), 건주(建州), 건녕부(建寧府)

16) 王麗(2012)에 의하면 '噤'는 임박태를 표현할 때도 쓰이며, 명사와 수량사 뒤에 놓여 변화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 阿媽葡做十噤。(奶奶要做壽了。) 곧 할머니 생신이다. (ii) 寒天噤, 衫厄頸橋少。(冬天了, 多穿點衣服。) 겨울이니 옷 좀 많이 입어라. (iii) 我金珠孫五歲噤。(我孫子五歲了。) 나의 손자는 다섯 살이 되었어. 보선 방언의 '噤'처럼 문말조사 '了'에 대응하는 형식은 다른 방언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의 지방 관청이 있던 곳이며, 民國 이전부터 민북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고대중국어로부터 발전하였기 때문에 고대중국어의 어음 특징과 어휘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민북 방언의 특징이다.

건구어(建甌話)에서 완료를 나타내는 표지로는 ‘掉’와 ‘了’가 관찰되는데, 이들은 모두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 사건/상태 또는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먼저 ‘掉’가 사용되는 예를 보도록 하자.

- (19) 作業都寫掉囉。(作業寫完了。)  
 숙제를 다 끝냈다.  
 (20) 飯都清掉了。(飯都涼了。)  
 밥이 식었다.

(江潔, 2015:14)

예(19)에서 ‘掉’는 동사 ‘寫’뒤에 놓여 숙제를 한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며, 여기서 ‘囉’를 수반한다. 예(20)에서는 형용사인 ‘清’뒤에 ‘掉’가 붙어 밥이 식어버렸음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了’는 여기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掉’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여전히 실사로도 사용되며, 그 의미가 어떤 동작의 결과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완료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sup>17)</sup>

건구어의 또 다른 완성 표지는 ‘了’로 [l a u] 와 [lɔ] 두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4성으로 읽는다. ‘了’는 현대중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 직접 붙어 ‘V+了’ 구조를 만들며, 사건의 완성 또는 종결을 나타낸다.<sup>18)</sup> 그리고 문장 끝에는 반드시 여기서 수반한다. 예(21)을 보도록 하자.

- (21) 樣書我覷了囉。(這本書我看完了。)  
 이 책 나는 다 봤다.

(江潔, 2015:15)

17) 『現代漢語詞典(第6版)』(2012:301)에 따르면 ‘掉’는 일부 동사 뒤에 놓여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로 쓰인다. 除掉, 抹掉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18) 건구어(建甌話)에서 ‘了’는 ‘완료, 종결’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도 사용된다. 電影了囉。(電影結束了) 영화가 끝났다. 江潔, 『建甌方言語法專題研究』, 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5年, p.15 참조.

만약 V+了 뒤에 또 다른 술어성 성분이 첨가되면 ‘了’는 선행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22) 使了五輪再使掉。(用了五次才用完。)  
다섯 번을 사용하고서야 비로소 다 썼다.

(江潔, 2015:16)

예(2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了’ 뒤에 후행절 ‘再使掉’가 오고 있으며, ‘了’는 선행절의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놓여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了’가 건구어에서 완료 표지로 쓰일 때 현대중국어의 ‘了’와 그 용법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了’가 완료 표지 뒤에 붙어 어기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관찰되는데, 이것은 ‘了’의 문법화 흔적이 방언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5) 민중(閩中) 방언

민중 방언은 복건성(福建省) 중부 지역에서 쓰이는 말로, 영안어(永安話)가 민중 방언을 대표한다. 민중 방언은 크게 永安話片, 三明話片, 沙縣話片으로 나눌 수 있다. 陳章太·李如龍(1991)은 “민중 방언은 민북 방언, 민남 방언, 객가어의 영향이 더해져 형성된 또 하나의 독자적인 방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 이후 다른 성(省)과 민중 지역의 인구가 서로 같은 지역에 모이게 되면서 민중 방언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周長楫·林寶卿(1992)에서도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민북 방언, 민남 방언, 객가 방언의 상호영향 하에 이 지역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활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중 방언은 다양한 모습의 언어가 뒤섞여 특색 있는 방언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영안어에서 ‘罷’와 ‘咯’는 현대중국어 ‘了’의 의미를 실현하는 표지이다. 먼저 ‘罷’는 완성된 동작의 양과 관련이 깊어 어떠한 동작이 철저히 혹은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예문을 보도록 하자.

(23) 他食罷。(他吃完了。)  
그는 다 먹었다.

(『福建省志·方言志』, 1998:267)

예(23)에서 ‘罷’는 동사 ‘食’ 뒤에 와서 먹은 행위가 완전하게 실현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어떠한 결과에 도달한 것까지 포함한다. 즉, ‘食罷’는 ‘吃掉(다 먹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다른 예문을 보도록 하자.

(24) 衣裳洗罷(咯)。(衣服洗完了。)  
옷을 다 세탁했다.

(周長楫·林寶卿, 1992:192)

예(24)에서 ‘洗罷’는 ‘다 세탁했다’의 의미이며, ‘罷’는 ‘洗’라는 동작의 완성뿐만 아니라 완성된 동작의 양/결과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 때로는 ‘罷’와 ‘咯’가 연용되어 술어성 성분을 구성할 때도 있는데, 이 구조는 ‘결과보어(罷)+어기사(咯)’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罷’가 동작의 완료는 물론 결과의 의미까지 나타내는 표지인 것과 달리 ‘咯’는 동사 뒤에 붙어 동작의 단순한 완성만을 의미한다. 예(25)~(26)이 그러한 경우이다.

(25) 我飯食咯。(吃了)  
나는 밥을 먹었다.  
(26) 這本書我唸咯。(讀了)  
이 책 나는 읽었다.

(周長楫·林寶卿, 1992:192)

예(25)에서 ‘食咯’는 ‘吃了(먹었다)’의 의미이며, 예(26)에서 ‘唸咯’는 ‘讀了(읽었다)’의 의미이다. ‘咯’는 현대중국어의 ‘了’와 동일하게 동사 뒤에 붙어 상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罷’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4. 결론

본 글은 閩 방언에 속하는 閩東, 閩南, 莆仙, 閩北, 閩中 방언에서 '了'의 의미가 다양한 형식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뒤에 결합하여 실현/완성이나 변화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분명히 비슷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 사이에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현대중국어 '了'와는 완전히 다른 점들을 찾을 수 있다. 그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민방언 구분	형식	용법	현대중국어 '了'와 다른 점
민동방언 (閩東方言)	咯	V/A+(C)+咯 상태 변화의 실현	동작의 지배를 받는 목적어 (受事賓語)는 동사의 앞에 위치 伊藥食鄭咯. (閩東) 他吃錯了藥. (現漢)
	黎	V+黎+O/C+ 후행절 선행동작의 완성	
민남방언 (閩南方言)	去	V+去 ① 사건의 완성/실현 ② 방향보어	'嘞'는 목적어/보어 뒤에 위치 問伊嘞則說. (閩南) 問了他再說. (現漢)
	嘞	V+O/C+嘞	
보선방언 (莆仙方言)	嘞	V(결과C)+嘞 동작 완성/상태 변화	① 방향보어 출현시 '嘞' 생략 伊宮出來. (莆仙) 他講了出來. (現漢) ② 동작의 지배를 받는 목적어 (受事賓語)는 동사의 앞에 위치 我許個杯罎乞呷歹嘞. (莆仙) 我打破了那個杯子. (現漢)
	了	V+了+O/C+ 후행절 선행동작의 완성	
	噉	V/A+噉 상태 변화	
민북방언 (閩北方言)	掉	V/A+掉+囉(어기사) 동작 완성/상태 변화	문미에 반드시 어기사 수반 樣書我靚了囉. (閩北) 這本書我看完了. (現漢)
	了	① V+了+囉(어기사) 사건의 완성/실현 ② V+了+후행절 선행동작의 완성	

민중방언 (閩中方言)	罷	V+罷 동작의 철저한 완성	'罷'는 양/결과의 의미 내포 他食罷。(吃完) 他吃了。(吃了)
	咯	V+咯 동작의 완성	

이상 표에서 말해주듯이 현대중국어의 '了'가 민방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장 안에서의 위치나 기능까지도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민둥 방언과 보선 방언에서 목적어가 동사 앞에 놓여 'O+V+咯/嘸'의 어순을 이루는 점, 민북 방언에서 '了' 뒤에 어기사를 반드시 수반하는 점, 또 민중 방언에서 '罷'가 완성뿐만 아니라 결과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은 현대중국어의 '了'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리고 보선 방언에서 '嘸'는 현대중국어 문말조사 '了'처럼 쓰임이 매우 다양하며, 다른 방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형식이다.

이들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충할 수 있겠다. 중국어에서 '了'는 동사로부터 출발하여 방향, 결과보어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기능어로 발전하였다. 민방언의 일부 '了'에 대응하는 표지에서도 문법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흔적들이 보였다. 단, 각기 다른 방언에서 문법화가 동일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민북 방언에서 '掉'는 동사와 보어로 쓰이면서 동사나 형용사 뒤에 놓여 완성/실현,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또 민남 방언에서 '去' 역시 방향보어로 쓰이지만 완료/완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 사실은 '掉'와 '去'가 문법화 단계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선 방언과 민북 방언에서 '了'는 현대중국어에서 '了'와 발음에 있어서 다르지만 매우 유사한 용법으로 쓰이며, 어기사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문법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了'가 여전히 동사로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了'의 통시적인 발전 경로가 방언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중국어에서보다 그 쓰임이 훨씬 넓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에 의한 한정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언에서 '了'의 실



현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또 현대중국어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차(次)방언 사이에 어떤 상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며, 방언의 어법 연구에 다가가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參考文獻〉

- 樸炯春, 「중국어 방언조사 방법론: 산동방언 어음조사를 중심으로」 『중국어학논총』 제18집, 2004년.
- 유수경, 「언어유형학적 각도에서 본 중국어 '來'의 기능 연구 - 방언 문미조사 '來'의 시상 기능을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64집, 2016년.
- 이지은·강병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본 중국어 방언 분류 - 음운, 형태, 어법 자질을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54집, 2014년.
- 蔡國妹, 『莆仙方言研究 - 兼論過渡性方言的特征』,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6년.
- 陳怡璿, 「台灣閩南語準句末助詞“去”的歷時語意發展」 『臺灣語文研究』 第1期, 2010년.
- 陳章太·李如龍, 『閩語研究』, 北京, 語文出版社, 1991년.
- 陳前瑞, 『漢語體貌研究的類型學視野』, 北京, 商務印書館, 2008년.
- 陳小紅, 「了<sub>1</sub>、了<sub>2</sub>語法意義辨疑」 『語言教學與研究』 第5期, 2007년.
- 陳小紅, 「了<sub>1</sub>、了<sub>2</sub>的句法位置」 『南陽師範學院學報』 第4期, 2011년.
- 陳澤平, 「福州方言動詞的“體”和“貌”」 『動詞的體』, 香港, 中國語文研究中心, 1996년.
- 陳澤平, 「試論完成貌助詞“去”」 『中國語文』 第2期, 1992년.
- 馮志純, 「時態助詞“了”和語氣助詞“了”的用法及其辨別」 『語文學習』 第2期, 1982년.
- 福建省地方志編纂委員會, 『福建省志·方言志』, 北京, 方志出版社, 1998년.
- 郭輝·郭迪迪, 「淮北方言的體貌系統」 『淮北師範大學學報』 第4期, 2013년.
- 侯精一, 『現代漢語方言概論』,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2년.
- 胡繼明, 連麗萍, 「閩南方言潮陽話的體貌初探」 『四川文理學院學報』 第4期, 2008년.
- 黃伯榮, 『漢語方言語法類編』, 青島, 青島出版社, 1996년.
- 黃伯榮, 廖序東, 『現代漢語』,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1년.
- 黃金洪, 「閩語仙遊話和廈門話、福州話詞語同異探析」 『遼寧教育行政學院學報』 第3期, 2008년.
- 金立義, 「試論“了”的時體特征」 『語言教學與研究』 第1期, 1998년.
- 竟成, 「關於動態助詞“了”的語法意義問題」 『語文研究』 第1期, 1993년.

- 江 潔,『建甌方言語法專題研究』,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5年.
- 孔令達,「了<sub>1</sub>」句與「了<sub>2</sub>」句的語義比較—兼論現代漢語動態助詞研究的方法」『安徽師大學報』第1期,1990年.
- 李 榮等,『中國語言地圖集』,香港,香港朗文(遠東)出版公司,1987年.
- 李 榮,「漢語方言的分區」『方言』第4期,1989年.
- 李如龍,「泉州方言的“體”」『動詞的體』,香港,中國語文研究中心,1996年.
- 李如龍,陳章太,「論閩方言內部的主要差異」『中國語言學報』第2期,1984年.
- 李如龍,『閩南方言語法研究』,福建,福建人民出版社,2007年.
- 李如龍,『福建方言』,福建,福建人民出版社,1997年.
- 李小凡,『漢語方言學基礎教程』,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9年.
- 李新魁,「廣東閩方言形成的歷史過程」『廣東社會科學』第3期,1987年.
- 李 濱,「閩東古田方言動詞的體和貌」『福州大學學報』第6期,2014年.
- 林華東,『泉州方言研究』,廈門,廈門大學出版社,2008年.
- 劉勳寧,「現代漢語詞尾“了”的語法意義」『中國語文』第5期,1988年.
- 劉勳寧,「現代漢語詞尾“了”的語法意義」『世界漢語教學』第12期,1990年.
- 劉月華等,『實用現代漢語語法』,北京,商務印書館,2001年.
- 盧小群·韓金廣,「新時期以來漢語方言時體問題研究述評」『現代語文』第7期,2014年.
- 呂叔湘,『現代漢語捌佰詞』,北京,商務印書館,1980年.
- 梅祖麟,「現代漢語完成貌句式和詞尾的來源」『語言研究』,00期,1981年.
- 潘茂鼎等,「福建漢語方言分區略說」『中國語文』第6期,1963年.
- 施其生,「閩南方言表實現體貌的“了”」『語言科學』第3期,2014年.
- 饒長溶,「福建長汀方言動詞的體貌」『中國語文』第6期,1996年.
- 王 麗,『莆仙方言的助詞』,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03年.
- 王 麗,「莆仙方言動詞完成體的表示法」『三明學院學報』第1期,2006年.
- 王 麗,「福建仙遊方言的“了”“嘍”“噯”」『方言』第3期,2012年.
- 王 麗,「閩語仙遊方言的已然體」『三明學院學報』第1期,2013年.
- 吳福祥,「漢語方言與去向動詞相關的幾種語法化模式」『方言』第2期,2010年.
- 邢福義,『漢語語法三百問』,北京,商務印書館,2002.
- 袁家驊,『漢語方言概要』,北京,語文出版社,2001年.
- 周長楫·林寶卿,『永安方言』,廈門,廈門大學出版社,1992年.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現代漢語詞典(第6版)』,北京,商務印書館,2012年.
- Bernald Comrie(郭利霞 譯),『體範疇(Aspect)』,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6(1975)年.
- Charles N. Li·Sandra A. Thompson(박정구 외 譯),『표준중국어문법』,서울,한울,

1989(1981)년.

Jerry Norman(全廣鎮 譯), 『중국어언어학총론』, 서울, 東文選, 1996(1988)년.

Joan Bybee 외(박선자 외 譯), 『문법의 진화—시제, 상, 양태』, 서울, 소통, 2010(1994)년.

〈Abstract〉

A Study on Various Forms of the '了' in the Min(閩) Dialect

Chen, Huan-chang / Ko, Young-ran

This study discusses various forms corresponding to 'le(了)' in the Min(閩) dialect through the method of literature investigation. In the Mindong(閩東), Minnan(閩南), Puxian(莆仙), Minbei(閩北) and Minzhong(閩中) dialects that belong to the broader Min(閩) dialect, the meaning of 'le(了)' is expressed by various forms. They all share a commonality, the Perfect Aspect or the Sentence-Final Particle. However, differences appear in terms of the position and function within a sentence. In addition, they are similar to 'le(了)' in modern Chinese as well as other distinct differences. For instance, the object of the transitive verb is placed in front of the verb in the Mindong(閩東) and Puxian(莆仙) dialects and it must accompany the modal particle after the '掉' and '了' in the Minbei(閩北) dialect. These are distinct characteristics from 'le(了)' in modern Chinese.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discussion on several markers corresponding to 'le(了)' of modern Chinese will help provide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typical development path of the Aspect Marker in terms of grammaticalization.

Key words: Min(閩) dialect, Aspect Marker, Chinese dialects, le(了), Mindong(閩東) · Minnan(閩南) · Puxian(莆仙) · Minbei(閩北) · Minzhong(閩中) dialects

이 논문은 2019년 1월 16일에 접수되어 2019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2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